# '참사람 결사' 특별법회 연다

## 백양사 고불총림 주최…14~16일 BBS 대법당서

## 서옹스님 "인간성 회복·생명자각" 강조

## 정신타락·환경파괴 극복 대안 제시

21세기 현대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 파괴의 위기를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의 '참사람결사' 특별법회가 봉행된다.

백양사 고불총림(방장 서옹)은 최근 참사람결사 법회위원회(위원장 지선)에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증명으로, 고문에는 석주 관응 월산 수산 비룡 천운스님과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매일 오후3시) 서울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참사람 특별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참사람'은 서옹스님이 "과학문명이 붕괴에 직면하고,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현대를 참사람원리로써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자"고 주창해온 사상운동이다. 서옹스님은 '참사람'을 "유물(唯物)에도 유심(唯心)에도 무의식에도 하느님(God)에도 불조(佛祖)에도 구속받지 않는 공간적으로는 광대무변한 세계를 형성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무한한 역사를 창조하는 절대주체의 자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서옹스님의 〈임제록〉을 주제로 한 법어가 3일 동안 설해지며, 매일 특별강연회도 개최된다. 서옹스님은 법어에서 현대문명의 바탕인 서구문화는 목적론적 기계론적 사고로 세계를 설명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참사람운동을 통해 인간정신의 타락과 자연환경의 파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회와 함께 열리는 특별강연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현대인의 보살도'(14일, 정병조 동국대교수) '선과 참사람'(15일, 종성스님·임제선원장)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16일, 건기종·동국대교수).

법회위원장 지선스님은 "침체된 불교에 생명을 불어넣고 황폐화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 오래전부터 서옹스님께서 '참사람결사'를 주창해오셨다"며 특별법회에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된 석굴암(국보 제 24호)이 불교TV와 KBS에 의해 각각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문화유산의 해'인 내년초 안방에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화제의 두편의 다큐멘터리 중 한편은 불교TV가 제작하는 '석굴암(가제, PD 최세영)'. 다큐멘터리 '석굴암'은 신앙의 바탕위에서 건립된 석굴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올해 초 다큐멘터리 고려대장경으로 한국유선방송협회 우수작에 선정되기도 했던 최세영PD는 "석굴암의 역사성이나 예술성, 과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석굴암의 신비를 이끌어낸 심오한 신앙의 힘을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줄 생각이다"면서 "불교TV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TV의 '석굴암'은 내년 초파일 쯤에 방영될 예정이다.

오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 선보일 예정으로 현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BS의 '원형탐구 석굴암(가제, PD 김형일)'.

김형일PD는 "석굴암을 우리나라 국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다루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천년전의 그 시대에 석굴암을 만들어냈던 신라인들의 지혜와 건축기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요 골격"이라고 말했다.

'원형탐구 석굴암'은 제목이 암시하듯 1천년전 원형그대로의 석굴암의 모습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재현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작팀은 지난 6일 본격적인 석굴암촬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래픽 작업에 착수해 지난 봄 다큐멘터리 '황룡사' 때와 마찬가지의 컴퓨터 그래픽기법을 선보이게 된다.

다큐멘터리 '원형탐구 석굴암'은 그래픽과 실사가 합성된 가상현실 공간에서 38구의 불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최근들어 잘못된 보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새롭게 재조명 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btn 석굴암 다큐제작 KBS

### 신라인 불심·건축기술등 과학적 조명

---

◇대행스님이 한마음선원 8번째 해외지원으로 개원한 독일지원 개원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개원

### 해외 8번째…10만 독일불자 귀의처로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카스트시에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스님)이 마침내 개원됐다. 이르써 현재 독일 전역의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독일인 불자들의 귀의처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개월여 준비끝에 지난 10월6일 개원법회를 가진 독일지원은 해외에서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트루만 토론토에 이어 8번째로 설립된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을 비롯 홍순영 주독일대사 카스트시 시장 등 한국 독일 인사 2백여명이 자리해 성황을 이루었다.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마음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참된 생명의 실상이나 혼탁한 세속생활에서 잃어버린 본디 마음"이라고 밝히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수양을 통해 도달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개원한 독일지원은 4백여평 대지에 2백평 규모의 단층건물이다. 한편 법당 내부에는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설비 시설을 갖춰 한인 신도는 물론 독일인 신도도 법회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지원은 매일 오전 11시 사시예불을 올리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정기법회를 연다. 특히 법회는 30분 참선, 대행스님 비디오 법문,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 02131-969551〉

### 加 토론토지원 중창이전

캐나다 한마음선원 토론토지원(지원장 청각스님) 중창이전 불사 회향 및 봉불점안 법회가 10월 27일 토론토 온타리올 현지에서 1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토론토지원은 금년 초 이전불사에 착수, 옛 한인회관 자리에 새로 도량을 마련하고 이번에 봉불회향식을 가졌다.

〈전화 416-750-7943〉

---

## "비종교인들 불교에 호감"

### 10년후 불교세 감소예상…포교대책 절실

### 홍기원교수 845명대상 '종교태도'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분포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후에도 이러한 순서로 유지되고 있을까. 개신교가 월등한 교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불교포교에 교계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서울과 천안에 거주하는 일반인 3백93명과 대학생 4백53명 등 총 8백4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해 홍기원(호서대·산업심리학)교수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개신교 265명(31.4%) 불교 122명(14.4%) 천주교 81명(9.6%) 기타종교 24명(2.8%) 무종교 353명(41.8%) 등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자들은 종교 집단별로 10년후(2006년) 3대 종교단체의 교세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63.8%) 천주교(33.9%) 불교(28.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타종교의 교세확장에 대해서 개신교인은 천주교의 교세는 불변(42.7%)이나 불교는 감소(48.7%)할 것으로, 천주교인은 개신교는 증가(60.5%) 불교는 감소(51.3%)를, 불교인은 개신교 증가(47.1%), 천주교 불변(47.1%)을 예상했다.

이 결과에 대해 홍교수는 개신교의 교세가 증가하고 천주교의 교세는 현상유지, 불교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불교인에게 가장 호감(3.63%, 천주교인 3.52% 개신교인 3.05%)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에 포교강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종단소식

### 각해총인 21일 추대식

진각종(통리원장 락해)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총인원대강당에서 제8대 총인 각해대정사〈사진〉 추대식을 개최한다. 각해대정사는 제7대에 이어 8대 총인에 재추대됐다.

### 태고종 종조다례식

태고종은 지난 1일 북한산 태고사에서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혜초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중진 간부 동방불교대학 학생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보우국사탄신 695주년 기념 종조다례법요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혜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보우국사의 다례법요를 계기로 종조의 원융회통 정신을 받들어 종단 화합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 법화불음봉사단 발족

제주시 서귀포시의 10여개 법화종 사찰신도 70여명으로 구성된 법화불음봉사단(회장 문윤자)이 지난 10월25일 제주 보문사에서 창단됐다.

지역봉사와 불음포교를 목적으로 한 법화불음봉사단은 매월 1회 불교교리 음악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

목탁소리

## 청소년비행의 원인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근본원인을 무엇일까? 매년 수능 이후부터 약 3개월 동안 각 학교와 학부모들은 청소년지도에 비상이 걸린다.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갖가지 방법을 동원, 선도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모든 청소년문제의 시발이 유흥업소, 대중매체물 등의 영향때문이라고 판단,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이 그동안 최선의 지도방법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대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지난 8월 개최된 연합캠프에서 실시한 청소년의식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가장 큰 원인을 문화시설의 부족(24.6%)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가정문제(20.7%), 나쁜 친구의 영향(20.%)이라고 답한 반면 성인들이 신각한 문제로 여겨왔던 대중매체의 영향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놓고 볼때 그동안 성인들의 안목에서 수십년간 진행돼온 '…하지마라, 안돼, …보지마라'는 식의 지도활동은 요즈음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예방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유흥업소와 향락문화에 청소년들이 젖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향을 고려한 지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건전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질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방송가 소식

## 대구BBS 11일 개국 한루 21시간 방송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방송지표로 불교대구방송(지사장 법타스님)이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지난 11일 개국했다.

불교대구방송은 주파수 94.5Mhz 호출부호 HLDI, 출력 3Kw로 대구경북 일대를 가청권으로 하루 21시간(5:45~01:55) 정규방송시간을 보도, 포교, 음악, 오락 등의 균형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역청취자들의 정서를 담아낼 계획이다.

개국일인 지난 11일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를 연결하는 4원 생방송과 '불교대구방송이 나아갈 길' '우리는 불자' '영남성산 팔공산' 등 특집프로그램으로 불교대구방송의 개국을 알렸다.

불교대구방송은 12일부터 정규방송에 돌입, 뉴스를 비롯 백팔가요, 고승열전, 등 중앙국프로그램과 대구경북 지역의 아침을 여는 '불국토의 아침', 종합음악프로그램 '내마음의 노래',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솔바람 풍경소리' 등 로칼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 이선옥교수 '선무지도'

#### KBS 2TV '아침을…' 서

정신과 육체를 함께 훈련시키고 건강한 삶의 활력을 찾게하는 '선무'가 관심을 모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오전 6시 10분) KBS 2TV '생방송 아침을 달린다' 일일 코너에 '선무 생활건강'이 방송돼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 선무를 지도하고 있는 이선옥교수〈사진〉는 "선무는 단순한 동작이 아닌 자신의 근본자리에서 내면의 자신과 몸속의 기를 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속의 불교 (97)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뒤집힌 꿈

우리가 그토록 즐겨 염송하는 반야심경에 보면 앞부분에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관자재 보살께서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비춰보시매' 그로써 일체의 고액을 제도하고 진리를 설파하기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관자재보살을 이른바 모든 중생의 물들지 않은 자성이라해도 좋다. 그 자성의 비춤으로 보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수상행식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해서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 느낌, 감정, 생각 따위는 모두 공(空)하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을 끝까지 따라 염송하면 이 세계도 공이요 물질도 공이요 나도 공이요 우리들의 의식세계까지도 공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걸릴 것이 없고 머물것이 없으며 고통도 두려움도 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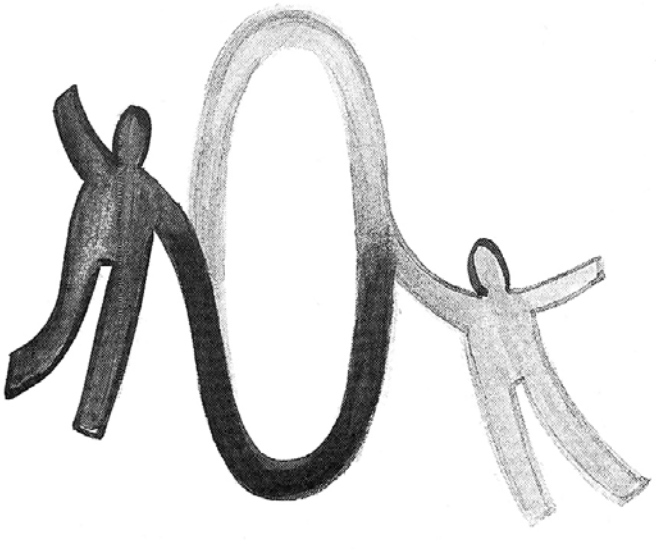
금강경의 이른바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 모든 형상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실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과 느낌의 연속적인 고리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한다. 그런 인식이 '나'를 시간적으로 항상하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우리는 또 육신이라는 그릇을 바깥테두리로 삼아 내가 있다고 느낀다. 그런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공간적으로 나와 너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 생각과 느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어떤 특정한 이름의 존재, 마치 독립된 성(城)과 같이 분리된 존재로 믿게 된다.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왜 경전에선 '오온개공'이라 하는가.

내가 분명히 있는 독립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 '나'는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 육신이라는 통 속에 구겨 넣어져 있을가. 찰나로 생겨났다 사라졌다하는



그 생각·느낌을 따라 드러났다 숨어있다 하는 것일까. 이 몸뚱이도, 생각이라는 것도 분명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니 나도 한번 시작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내가 분명히 독립적인 존재라면 어제의 행복했던 나는 어디로 가고 오늘의 고통스런 나로 남는가. 왜 어느 때는 두려워하고 어느때는 힘들어 하는가. 생사, 고락, 희비, 희망, 공포, 건강, 질병 등등 무수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그토록 변화무상하고 조변석개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따위의 생각을 불법은 뒤집힌 꿈같은 생각-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고 한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독립적이 아닌 것을 독립적이라고 믿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나는 개별적이지도 실재적이지도 않은데 다만 관념적으로 '그렇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는것. 목격하는것, 듣는것, 관찰하는 것, 보는 것에 따라서 매번 다른 나를 자신의 관념세계에 채곡 채곡 보태가며 그렇게 쌓인것을 개별적인 나인줄 믿고 산다는 것이다. 애지중지하면서 -.

'조견오온개공'은 바로 그런 뒤집힌 생각을 바로 비춰봄으로써 독립적인 나는 결국 찰나로 변하는 허상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걸 비춰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걸림없고 두려움 없는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법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그 개체성을 과감히 포기하라고 가르친다. 이른바 백척간두 진일보이다. 나를 분리된, 독립적인 나로 생각하는 한, 그걸 포기 할 수 없노라 고집하는 한 불법은 천리 밖에 머물게 된다.

협찬 : 김 광 현